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
		배포일시	2019. 10. 7(월) 총 3매(본문2)	
담당 부서	해외건설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박재순, 사무관 문봉섭, 전문위원 최진석 • ☎ (044) 201-3521, 3519	
	도시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이상주, 팀장 안세희, 사무관 최희정, 주무관 오은숙 • ☎ (044) 201-4972, 3721	
보 도 일 시		2019년 10월 8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7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국토부-미주개발은행(IDB), 중남미 스마트시티 진출 손잡는다 **- 스마트시티·인프라 투자협력 양해각서(MOU) 체결 스마트시티 워크숍 개최 -**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0월 7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미주개발은행*(총재 루이스 알베르토 모레노)과 스마트시티·인프라 공동투자협력을 위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했다고 밝혔다.

* IDB(Inter-American Development Bank): 중남미 국가에 대한 경제사회발전자금 지원을 위해 '59년에 설립된 미주지역 최대 금융기구(회원국 48개국, 본부 미국 워싱턴D.C., 자본금 약 1,768억불(약 213조원), 직원수 2천여명)

○ 주요 내용은 중남미 국가의 스마트시티 및 인프라 분야 발전을 위한 공동투자, 정보·기술 협력, 인적교류 등이다.

□ 중남미 지역은 향후 30년간 매년 1,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발이 필요*하고, 투자개발(PPP) 세계시장도 향후 10년간 1조 달러 규모로 확대가 예상**되는 주요 건설시장이다.

* 자료: '19.26. IDB 보도자료(IDB 60주년 기념 행사: 비즈니스 서밋 주요내용)

** 자료: '18. BMI Global 인프라 시장

○ 또한,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, 특히, 교통·치안·방재·수자원·의료 등의 분야에서 스마트시티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어,

○ 한국의 건설 및 스마트시티 관련기업들의 진출기회가 충분히 잠재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.

□ 이러한 배경에서 국토교통부와 IDB는 중남미 지역의 스마트시티 및 인프라 분야 공동사업을 발굴·투자하기 위해 이번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게 되었으며,

○ 이를 계기로 우선 중남미 주요도시 1~2곳을 선정하고 우리 전문가를 활용해 해당도시의 스마트시티 기본구상을 수립할 예정이며, 이를 토대로 향후 사업화하여 실행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.

○ 또한, 지난 5월 IDB가 발표한 10억불 규모의 ‘베네수엘라 대규모 이주민 발생에 따른 주변국 지원사업’^{*}의 일환으로 콜롬비아 등에 추진중인 주택난 해소방안도 함께 검토·추진하여, 국제사회 문제도 함께 해결해나간다는 계획이다.

* '19.5.7 IDB 이사회는 베네수엘라 이주민 대규모 유입에 따른 인근국가 도시문제(주택·위생·교육·치안·난민등록 등) 해결을 위한 보조금(10억불) 지원제도(Grant Facility) 승인

※ 베네수엘라의 경제·인도적 위기로 국민 400만명 이상이 인근국으로 집단이주 ('19.6. 유엔난민기구(UNHCR) 추정: 400만명(콜롬비아 130만명, 페루 76.8만명, 칠레 28.8만명, 에콰도르 26.3만명, 브라질 16.8만명, 아르헨티나 13만명 등))

□ 국토교통부와 IDB는 이번 MOU를 기념하기 위해 10월 8일 국토연구원(원장 강현수)과 함께 ‘스마트시티 기술 워크숍’을 개최하며,

○ 페데리코(Federico Gutiérrez) 콜롬비아 메데진 시장, 한만희 스마트도시·건축학회장 등 국내외 관계자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.

* '19.10.8(화), 신라호텔 영빈관(Topaz홀), 08:30~10:30(www.korea-lac.com 사전등록자만 참석가능)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금년 상반기에 조성한 1.5조원 규모의 ‘글로벌 플랜트·건설·스마트시티 펀드(PIS 펀드)’를 적극 활용하여 IDB와 공동사업 투자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”라고 하며,

○ “매년 100~130억 달러의 저리 차관을 중남미 각 정부에 제공하는 미주지역 최대 지역개발 금융기구인 IDB와 공동사업을 발굴·투자함으로써, 중남미 지역에서 우량 사업발굴 및 우리기업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 공공누리 공공자식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정책과 문봉섭 사무관(☎ 044-201-352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

□ 명 칭 : 미주개발은행(Inter-American Development Bank)

※ 지역개발 금융기구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으며, 미주지역 최대 지역개발 금융기구

□ 설립년도 : 1959. 12. 30 (올해 창립 60주년, '60.10.1 업무개시)

□ 본부위치 : 미국 워싱턴 D.C.

□ 설립목적 : 중남미 국가에 대한 경제사회발전 자금 지원

□ 회원국 : 48개국(역내 28개국, 역외 20개국(한국 등))

□ 주요기능

- 공공 및 민간자본의 투자촉진, 융자 및 지급보증을 통한 가용재원 운용
- 재원조달이 어려운 민간부문의 투자활동 보완
- 가맹국간 무역 확대와 개발정책 조화를 위한 협력 강화 활동
- 중남미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, 집행을 위한 기술지원 등

□ 총자본금 : 176,752백만불 ('18.12現) - 약 213조원

※ IDB는 중남미 개발을 위해 연간 100~130억 달러의 저리 차관을 각 정부에 제공

□ 조직현황 : 총회(의사결정기구), 이사회(집행 및 감독기관),
운영체계(총재-수석부총재-부총재-각부서, 직원수 2,000여명)

□ 총 재 : 루이스 알베르토 모레노(Luis Alberto Moreno, 콜롬비아)

□ 우리나라와의 관계 : '05. 3. 16 가입 (총 1.8억불 출연)